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 설날 행사



1월 23일 설날을 맞이하여 제기차기, 투호 던지기 등 민속놀이 대회를 열었다. 병원에서 보내는 명절이지만 환자와 가족들은 옛이야기를 나누며 명절의 풍요로움을 나누었다.

▶ 부활 선물 나눔



4월 10일 부활 대축일을 맞이하여 부활의 기쁨을 전하였다. 환자와 가족 모두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포근한 목베개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먹는 것 대신 수건케이크를 선물하였다.

▶ 어버이날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카네이션과 선물을 전달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많은 가족이 방문하지 못

하지만 대신하여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었다.

▶ 추억 만들기: 미니 화분 만들기

5월 28일 환자와 가족이 화분에 씨앗을 심으며 소중한 추억을 하나 더 만들고, 새싹이 나고 자라는 모습

을 함께 나누며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나팔꽃 미니 화분 만들기를 하였다. 즐겁고 기쁜 모습들로 좋은 시간이었다고 표현하였다.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 성탄 파티



2019년 12월 23일 환자 및 가족들과 함께하는 성탄제를 준비하였다. 호스피스 팀원 및 봉사자들의 기타연주, 노래, 댄스 등 흥겨운 공연으로 즐거운 시간을 가졌고, 과일과 떡, 치킨, 호박죽 등 맛있는 다과와 성탄 선물을 준비하여 환자 및 가족들에게 소중한 추억을 선물하였다.

▶ 이노비 음악회

1월 8일 환자 및 가족들을 위하여 이노비 코리아와 함께 즐거운 음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공연은 멋진 기타연주와 아름다운 소프라노 성악가들의 목소리로 가득 채워졌다. 환자와 가족들은 음악회를 감상하며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 1분기 전체 사별가족 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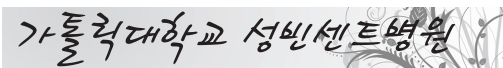


1월 16일 1분기 전체 사별가족 모임을 개최하였다. 기존 연간 2회 운영하던 전체 사별가족 모임을 4회로 증설한 이후 처음 준비한 모임으로 총 26명의 가족이 참여하였다. 호스피스 팀원들이 준비한 고인 분들의 영상을 감상하고 사랑하는 고인에게 편지를 쓰고 꽃을 봉헌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사별가족들이 서로 위로받고 지지하는 따뜻한 시간을 가졌다.

▶ 가톨릭대학교 명예교수 이경식 교수

제36회 가톨릭 대상(사랑상) 수상

2월 8일 서울성모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의 정신적 지주인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인 이경식 교수가 제36회 가톨릭 대상(사랑상)을 수상하였다. 이경식 교수는 수상의 기쁨을 주님과 호스피스에서 돌아간 고인과 그 가족들, 호스피스 팀원들에게 돌리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더불어 환자와 보호자들의 복지를 위해 수상금 일부를 기부하며 다시 한번 선행의 모범을 보였다.



▶ 밥심 : 밥으로 나누는 마음



올해 3월부터 호스피스 병동에서는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을 위해 매주 월, 수, 금 주 3회씩 따뜻한 점심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을 유지하면서,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이 따뜻한 국과 밥 한 끼로 조금이나마 지친 일상에 힘이 되고 서로 간에 격려하는 시간이 되어 가고 있다.

▶ 결혼기념일 이벤트



3월 21일 김○○ 환자의 30주년 결혼기념일을 맞이하여 호스피스 팀원들과 가족들이 함께 결혼기념일 이벤트를 준비하였다. 이 시간을 통해 가족 간에 서로에 대한 애정과 진심 어린 마음을 확인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시간이었다.

▶ 통증 캠페인



5월 11일 본원 환자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통증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직접 방문하여 통증 OX 퀴즈를 통해 암성통증 조절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설명하고 통증 관리의 필요성을 알렸으며, 암성통증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리플렛 및 기념품을 배부하는 등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 설날 행사



1월 23일 민족 고유 명절인 설을 맞아 환자, 보호자, 다학제 팀원들과의 '우리 함께'한 소중한 시간은 아름다운 추억이었다.

▶ 힐링 데이

코로나19 감염증 장기화로 지친 환자, 보호자를 위한 힐링 데이로 '간호사와 함께하는 커피 요법'을 실시하였다. 우리 함께, 향기를 전해요~ '나는 그냥 당신이 참 좋습니다.'



▶ 부처님 오신 날



종교의 화합과 일치의 축제를 환자, 보호자 그리고 다학제 팀원들과 함께한 나눔과 어울림의 시간이었다. 이날 '아름

을 덜고 마음을 채우다.' 라는 주제로 환자분들께 직접 만든 연꽃 등을 선물로 드렸다. 연꽃 꽃말은 '저의 고통을 덜어주세요이다.'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 호스피스 관계자 센터 방문



1월 3일 이대목동병원 호스피스 관계자 사회복지사 1명, 신규 봉사자 5명이 본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를 방문하였다. 봉사하기 위해 호스피스에 대한 이론 수업을 받고 실습을 하기 전 타 병원 호스피스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고 싶어 오셨다고 하여 Sr.정혜영 팀장이 기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막연하게 느껴지는 호스피스가 뭔가 그림으로 잡혀간다면 행복해하였다.

▶ 부활 맞이 행사



4월 10일 부활 맞이 선물 나눔과 환자, 가족을 위한 식사를 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병동은 입원 환자와 상주보호자 1명으로 면회객을 제한하여 병원에 입원에 계시면서 지치고 힘들어하였다. 지치고 힘들어하는 가족을 위해 호스피스팀이 작은 선물과 따뜻한 도시락을 준비하여 대접하였다. 환자나 가족은 자유롭게 밖에

나갈 수는 없지만, 잠깐이라도 숨을 쉬게 해주고 따뜻한 배려를 느끼게 해주어 고맙다고 표현해 주셨다.

▶ 어버이날 행사



5월 8일 어버이날 카네이션 선물과 환자, 가족을 위한 식사를 제공하였다. 코로나19 시대에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병원을 방문하지 못하는 보호자의 마음과 움직임이 자유롭지 않은 보호자의 마음을 생각하여 병동에서 카네이션 코사지를 선물하였다. 식사는 입맛이 없는 환자, 가족을 위해 꼬막 비빔밥을 준비하였다. 임종실에 계시는 보호자는 저희 팀의 따뜻한 마음에 행복하다며, 누워 계시는 환자의 가슴에 카네이션꽃을 달아주면서 울먹이시고 식사를 못 하시어 어머니에게 음식을 챙겨주어 힘이 난다면 좋아해 주셨다.

▶ 통증 캠페인



6월 18, 19일은 온라인상 교직원을 대상으로 통증 캠페인을 시행하였다. 첫날은 1,041명, 둘째 날은 826명이 문제를 읽고 90명 이상이 댓글을 달아 주었다. 원내 교직원에게 통증에 대한 홍보도 하고 소정의 홍보용품도 전달하였다.

6월 22일 병동 환자와 가족, 내원객을 대상으로 223명이 참여한 가운데 '암성통증은 조절 가능하다'와 '마약성 진통제는 중독된다'로 O, X 퀴즈를 진행하여 암성 통증 및 마약성 진통제에 대해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 소원 들어주기 프로젝트



2019년 12월 23일 가족들과 함께 바다에 가보고 싶다는 환자의 소원을 들어드리고자 호스피스팀이 함께 월미도 바닷가 나들이를 다녀왔다. 환자는 꿈에만 그렸던 일이 벌어진 거 같다고 소감을 말하였다.

▶ 설날맞이 떡국 나눔

1월 21일 '설날맞이 떡국 나눔' 행사를 하였다.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이 정성 들여 만든 떡국을 환자와 보호자와 함께 먹고 답소를 나누며 풍성한 설을 맞이하는 시간을 가졌다.

▶ 우리들의 특별한 여행



2월 22일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환자들에게 가족과 함께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가족여행을 지원하였다. 참여한 가족들은 여행을 계기로 살아있을 때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다고 소감을 말하였다.

▶ 음악과 함께 하는 일일 차 나눔

보호자들의 간병 소진을 예방하고 환자들의 환기를 돕고자 음악과 함께하는 차 나눔을 주1회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 행복 충전 지금, 이 순간



환자 및 가족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 기억에 남는 소중한 추억 등 사연을 적어 접수하면 특별한 DJ가 출연하여 신청곡과 함께 사연을 낭독해 드리고 있다.

▶ 어버이날 행사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이해 감사와 사랑의 의미를 담아 떡과 카네이션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코로나19로 방문하지 못한 가족들은 아쉬운 마음을 편지로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 통증 캠페인

6월 3일 본원 병동, 외래 진료과 등에서 내원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암성통증, 바로 알기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통증 리플릿 및 홍보물(볼펜, 부채, 베지 등) 배포 등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졌다.

대구대학교 가정호스피스

▶ 2월 4일 대세 받았던 뇌종양인 자매가 바로 병원 사목 신부님께서 오셔서 세례받고 병자성사까지 받아 기뻐하며 봉사자, 환자 언니와 같이 기념사진을 찍었다.



▶ 2월 10일 세계 병자의 날에 사무실에서 장기근속 봉사자 상 20년 1명과 10년 2명이 수상하였다.



부산성모병원

▶ 세계 병자의 날 행사

2월 7일 천주교회는 해마다 2월 11일을 '세계 병자의 날'로 지내고 있다. 이날 교회는 병자들의 쾌유를 위해 기도하며, 또한 병자들을 돌보는 의료인, 봉사자들도 함께 기억하며 사랑과 봉사의 정신을 가다듬는 기도의 시간도 갖는다. 본 병동에서도 해마다 맞이하는 기념일로 그치지 않는 환자 한 분 한 분에게 현재를 함께 하는 동행인으로 인사드리며 위로와 용기를 북돋우는 시간을 가졌다.

▶ 부활 축하 특식 제공 및 부활 초코 계란, 쿠키 선물
4월 12일, 14일 예수님 부활의 기쁨을 마련한 자리, 부활계란과 특식을 마련 환자와 가족들에게 사랑과 정성의 집 밥 식사 시간을 마련하였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예년의 뷔페식에서 개인도시락으로 준비 제공하였는데, 못지않은 풍성하고 맛깔스러운 음식과 과일 등으로 준비한 식사가 만족한 나눔이 되어 환자와 보호자 팀원이 한 식구가 되는 의미 있는 아가페의 장이었다.

▶ 어버이날 축하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병동의 모든 어머니 아버지께 붉은 가네이션을 선물, 어버이의 큰 사랑을 기렸다. 가정과 가족을

위해 헌신해온 우리 부모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미처 찾아뵙지 못한 가족들에게도 위로가 되는 시간이었다.

▶ 호스피스 캠페인



5월 27일 "암성 통증 조절될 수 있다." 아직도 '호스피스는 죽을 때 가는 곳이다.' '다 포기하고 마지막에 가는 곳이다.'라고 여기는 편견과 오해를 불식, 인식 개선을 위한 통증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코로나 감염 우려로 원내에서만 국한된 조용한 행사로 내원 환자와 방문객들을 대상, 호스피스 안내장과 홍보 물품으로 손 살균보습제를 제공하여 관심을 모았다.

성바오로 가정호스피스센터

▶ 2020년 신년 미사



1월 17일 환우와 가족, 후원자, 자원봉사자를 모시고 의정부교구 총대리 맹제영 로마노 신부님의 집전으로 지난 한 해의 감사와 새해의 희망을 기원하는 신년 미사를 봉헌하였다. 미사 후 2019년 센터 활동 보고가 있었으며 오신 분들과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 성모의 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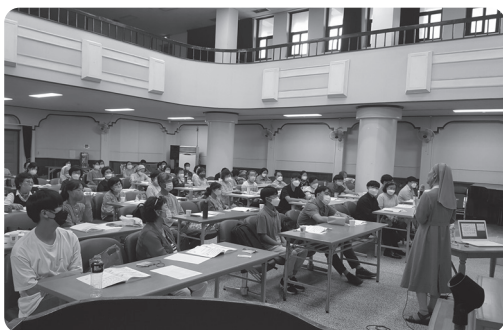


아름다운 계절, 푸르름이 짙어가는 5월, 성모님의 겸손과 믿음의 삶을 기억하며 성모의 날 행사가 센터 트랙에서 있었다. 1부는 김준영 미카엘 신부님(의정부교구 2지구장)과 이재정 토마스아퀴나스 신부님(별내성당 주임)의 집전으로 미사를 봉헌하였고, 2부에서는 듀오 메타노이아(생활 성가 가수 김정식 로제, 테너 송봉섭 요한)의 공연으로 찬미와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원주교구 보건 사목부

▶ 천주교 원주교구 보건사목(保健司牧: Health care ministry)은 2008년에 교구청 내 부서로 신설된 이후

치유를 통한 복음화를 위해 가톨릭교회의 가르침과 가톨릭 영성을 바탕으로 보건의료 분야의 사목을 담당하고 있다. 매년 호스피스 완화의료 교육을 하여 2020년에는 14회 차가 되었는데 코로나19 속에서 시행 여부에 대한 심사숙고 끝에 교구 방침에 따라 일반인 대상 16시간 과정을 6월 27일~28일에 원주가톨릭센터에서 진행하였다. 사회적 거리 두기와 방역지침 준수로 인해 전체 신청자의 3분의 2 정도 인원인 57명이 참가하였으며 원주교구 신학생을 포함하여 강원권 각 지역에서 모인 참가자들은 각 분야 전문가인 8명 강사의 귀중한 강의를 마스크 착용의 불편함도 뒤로 한 채 온몸으로 집중하며 경청하였다.



5월 18일 우수명 학생이 2019년 12월 18일 해바라기 병동에서 돌아가신 아버를 기억하며 준비한 작은 음악회를 열어 환자들을 모시고 플루트, 오카리나로 8곡을 연주하여 기쁨을 주었다.



5월 20일 황○수님의 86세 생신을 맞아 가족을 초대하여 직원들이 생신 축하 노래를 불러드리고 케이크 커팅, 다과로 가족들과의 시간을 보내셨다.

▶ 소진 프로그램



5월 29일 완화의료팀 6명이 익산의 명소 미륵산. 미륵사지 둘레 길을 다녀왔다. 코로나19로 인한 여파로 소진된 팀원들이 모처럼 솔숲, 대나무 숲 향기 맡으며 청정한 곳에서의 심호흡, 풀밭에서의 योग으로 몸을 풀고 내려오다 식사하며 그동안 어렵고 힘들었던 병상에서의 고단했던 시간을 나누고 서로 풀어주는 시간을 가졌다.

익산성모병원

▶ 세례

2월 12일 임종을 앞둔 박○수님께서 형제와 본인의 원의로 요셉으로 대세를 드리고 영등소라성당에 교직을 올렸고, 2월 24일 김○순님께서도 가족과 본인의 원의로 마리아로 대세를 드리고 영등동성당에 교직을 올리고 임종 준비를 해드렸다.

▶ 이벤트

3월 20일 마○수님의 결혼 30주년을 맞아 직원들의 축하 노래와 꽃다발 증정, 케이크 커팅, 사진 촬영으로 난생처음 해보는 일이라고 씩스럽다고 하며 그래도 마음으론 기쁨을 감추지 못하였다.

▶ 호스피스완화의료팀 세미나

1월 22일~ 5월 27일 (2월 26일, 3월 25일, 4월 29일) 월 1회 임종 돌봄 임상 진료 지침에 대한 세미나를 박상훈 과장의 주제로 노인 병동 간호사들과 호스피스완화의료팀이 참석하여 듣고 임상에서의 임종 돌봄에

대해 서로가 체험한 환자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다.



천주의 성모한병원

▶ 사별가족 우편 발송



4월 21일 사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고 위로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

해 단체 모임이 제한되는 상황으로 모임을 대신하여 가족들에게 위로의 편지를 전달하였다. 빠른 시일 내 상황이 안정되어 가족들을 만날 수 있기를 바라본다.

▶ 일반인 대상 호스피스 교육



6월 22일 일반인을 대상으로 호스피스 활동의 전반적인 이해와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호스피스완화 의료 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을 통해 말기 암 환자와 그 가족들을 신체적, 정신적, 영적, 사회적으로 돌보는 교육을 통해 호스피스 대상자를 이해하고 도

울 수 있으며, 삶과 죽음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되는 시간이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철저한 방역체계 속에서 안전하게 교육을 하였다.

▶ 통증 캠페인 “암성통증, 조절 할 수 있습니다.”



6월 24일 일반의원 1층 로비에서 “암성통증, 조절할 수 있습니다.”라는 주제로 암성통증에 관한 관심 유발과 올바른 지식 함양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여 통증 조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였다.

한국가톨릭호스피스협회

▶ 제1회 이사회

1월 20일 제1회 이사회를 서울성모병원 호스피스 병동 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8명의 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황관옥 회장이 2019년 결산과 사업 보고, 2020년 예산(안)과 사업 계획(안)을 보고하였다. 안건 토의로 2020년 기관대표자회의 및 제13회 정기총회와 제20회 전국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날(1박 2일) 개최 장소와 프로그램에 관한 토의를 하였다.

▶ 제13회 정기(대의원)총회 및 2020년 기관대표자회의

2월 25일 개최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취소되어 산하기관장님들께 2019년 결산과 사업 보고 및 2020년 예산(안), 사업 계획(안)을 서면으로 보내드리고, 감사(유양숙, 유명순)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연임(2020년 4월 20일~2022년 4월 20일)에 대한 동의를 협회 이사님들께 받아 대전시청에 보고하였다.